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발행일 | 2010년 2월 16일

장 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제 작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 본 자료는 참여연대 시민경제교실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개인 학습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재인용을 금지합니다. 자료이용에 대한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02-723-5052)로 해 주십시오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이정우 /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I. 오래된 길, 박정희 모델

- 관치경제의 대표적 모델, 성장을 위주의 경제정책
 - 기회주의적인 성장률 집착, 경제정책 잘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부동산 가격, 불로소득, 물가 모두 대폭 상승 시켜 오늘날 까지 영향 미침
 - 성장률 높여 경제 살린 것으로 보이나, 남은 것은 세계 최고의 땅 값과 물가
 - 여전히 일부 박정희 모델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
- 박정희 경제 모델은 1930년 관동군, 만주국 모델
 - 단기적으로는 고성장이 가능, 지속가능하지 못함
 - 일본도 관동군, 만주국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해 장기 침체에 빠짐
- 부동산 가격 끝없이 올라
 - 연평균 지가 상승률, 이승만 정권 23.1%, 박정희 정권 33.1%
 - 참여정부 때 연평균 지가 상승률 4.3% 에도 국민들 위기의식 느꼈는데, 박정희 정권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지가 상승이었음
 - 전국지가 총액 현재 2천조, 이승만 정권 때는 1조원이 채 되지 않았음
 - 임대료, 임금 상승의 주요 원인
- 불로소득/생산소득 비율도 높아
 - 박정희 정권 당시 GDP 100% 늘어날 때 지주들이 얻는 불로소득이 248.8%에 육박, 서민이 도

- 6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경제 구조
-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를 방치하고 조장했음
-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 마이너스(-)기록 후 참여정부 때 8.4% 기록
- 현재는 불로소득이 거의 안 보이는 경제구조

- 기록적인 물가 상승
- 성장률에 급급한 결과로 기록적인 물가 상승 결과 초래
- 수출에 큰 장애요인으로 존재

<표1> 역대정권의 부동산 성적표

정권	기간	정권초기 전국 지가총액	정권말기 전국 지가총액	지가상승 불로소득	연평균 지가 상승률 (%)	지가총액/ 국내 총생산 비율(배) (1)	불로소득/ 생산소득 비율(%) (2)	경제 성장률 (%)
이승만	1953~	0.176	0.690	0.514	21.6	3.1	43.2	4.7
	1960							
박정희	1963~ 1979	3	329	326	33.1	12.0	248.8	9.1
전두환	1980~ 1987	367	735	368	14.9	7.2	67.9	8.7
노태우	1987~ 1992	735	1661	926	17.7	7.3	96.3	8.3
김영삼	1992~ 1997	1661	1558	-103	-1.2	4.1	-5.2	7.1
김대중	1997~ 2002	1558	1540	- 18	-0.6	2.5	-0.6	4.2
노무현	2002~	1540	1905	365	4.3	2.0	8.4	4.3
	2007							

II. 최근 10년의 시장만능주의

- 관치경제에서 성장 위주·분배 없는 영·미식 시장만능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로
- 1998년 IMF 요청과, 미 유학파 관료·학자들에 의해 시장만능주의 모델로 이양
- 자본주의의 다른 모델은 좌파, 사회주의로 배척함
- 언론조차 자유시장경제가 아니면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함
- 영·미식 자유시장경제 모델은 빈부격차 심한 모델

- 자본주의의 여러 모델 중 좋은 대안으로 볼 수 없어
- 금융위기 이후 맹목적 지지는 조금 사그라진 형국

○ 4가지 절대 주의가 한국을 망치는 기형적 자본주의 낡아

- 1. 반공주의 : 상대를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음
- 2. 성장지상주의 : 극단적 성장에 집착, 분배의 중요성을 간과
- 3. 시장만능주의 : 강자의 논리로 부자감세, 규제완화 약자들이 설 곳 없어
- 4. 서울중심패권주의 : 한국만큼 수도에 많은 것이 몰려 있는 나라는 없음, 행정, 교육, 경제, 문화가 전체의 2/3 이상 수도에 집중. 미국조차 워싱턴에 다 몰려 있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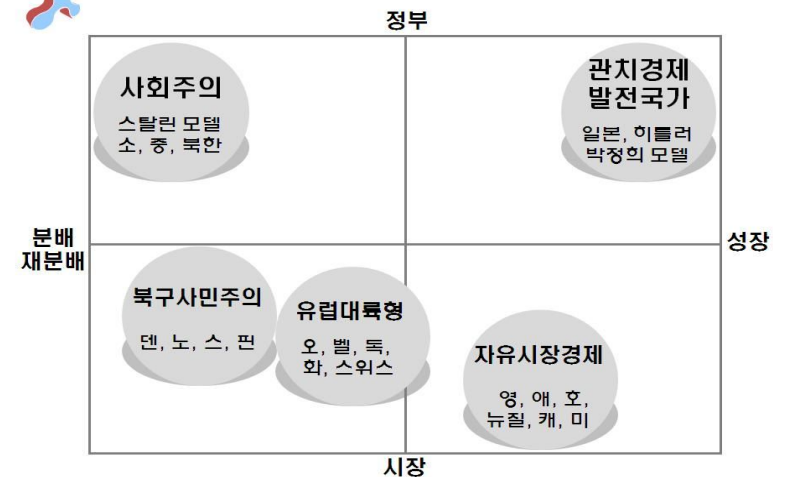
III. 대안을 찾아서 : 다양한 자본주의

○ 경제의 다양한 모델

- 유럽대륙형은 실업자 많고 자유시장경제는 빈부격차 심함
- 관치경제는 성장위주의 경제 단기적 성장이 가능하나 지속가능하지 않음
- 사회주의는 스탈린 모델로 과거 소련, 중국식 모델 사회민주주의 모델과는 다름



비교 정치경제 모델



○ 북유럽의 사민주의 모델이 가장 성과 좋다고 볼 수 있음

- 종래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인간적인 좌파 모델
- 경제민주주의와 산업민주주의를 선진적으로 이루어 냄
- 시장의 불평등을 국가가 해소, 소득 재분배 효과 아주 큼
- 김대중 정권 이전까지 한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 불평등 3% 감소, 북유럽은 32.9%, 유럽은 25.7%, 영미형은 22% 감소 효과 있음. 소득 재분배에서 국가의 역할 거의 없음. 때 문에 조세저항 큼

<표2> 자본주의 3개 모델의 경제성과

	지니 계수	1인당 GDP 2002, US\$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960-80 (%)	연간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1980-2000 (%)	GDP 중 수출 비중, 2000 (%)	평균 실업 률, 2000- 2003 (%)	연평균 고용증가 율, 1990- 2002 (%)
북구형	0.247	29,624	3.2	2.1	45.1	5.8	0.1
덴마크	0.236	29,328	2.7	1.7	43.8	4.8	0.2
핀란드	0.247	26,478	3.7	2.4	42.9	9.3	-0.4
노르웨이	0.251	35,482	3.7	2.5	46.6	3.9	1.1
스웨덴	0.252	27,209	2.7	1.6	47.2	5.3	-0.5
유럽형	0.267	28,291	3.1	1.7	56.7	5.2	0.8
오스트리 아	0.266	28,872	3.7	2.0	50.1	4.0	0.9
벨기에	0.250	27,716	3.6	2.0	86.3	7.3	0.5
독일	0.264	25,917	3.1	1.6	33.7	8.4	-0.2
네덜란드	0.248	29,009	2.9	1.9	67.2	3.0	2.0
스위스	0.307	29,940	2.1	1.0	46.4	3.2	0.7
영미형	0.330	29,483	2.5	2.3	40.0	5.6	1.7
호주	0.311	28,068	2.5	1.9	22.9	6.4	1.5
캐나다	0.302	30,303	3.2	1.5	45.9	7.3	1.4
아일랜드	0.325	32,646	3.5	4.7	94.9	4.3	3.5
뉴질랜드		21,783	1.4	1.3	36.7	5.3	2.0
영국	0.345	27,976	2.0	2.0	28.1	5.1	0.5
미국	0.368	36,121	2.1	2.1	11.2	5.1	1.2

	고용 보호지수	실업 보호지수	성장률 (1999~2003)	실업률 (1999~2003)	빈곤 (2000)	노조 조직률 (2000)	단체협약 (1985~1992)	노동시장 지출/GDP (2003)
북구모델 (사민주의)	0.7	0.66	2.8	8.38	5.3	76	2.8	3.31
라인모델 (거시담합주의)	0.71	0.73	1.9	5.35	8.7	33	2.3	2.45
영미형모델 (자유시장경제)	0.24	0.18	3.3	7.01	12.5	25	1.5	0.95

IV. 한국경제, 어디로?

○ MB정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경제정책

- MB 경제정책은 단기적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경제정책, 지속가능 하지 않음
- 말로만 친 서민, 중소기업이고 실체는 부자·강자를 위한 경제정책
- 4대강 사업, 세종시 등은 과거 박정희 시대의 관치경제로 회귀하는 것
-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정책은 달콤할 지라도 결국 독이 됨

○ 단기적 성장위주의 정책 보다 장기적으로 분배도 고려한 경제정책 펼쳐야

- 한국 땅치는 4대 절대주의 버리고 사회통합을 중시해야함
- 약자,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 이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과감한 분배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
-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보다는 경제정책을 장기적, 원칙적으로 펼쳐 온건·합리적이고 인간 적인 사회를 만들려 노력 해야 함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6 blog.peoplepower21.org/economy